

관세협상 타결...현금투자 2천억달러·年상한 200억달러

경주서 한미정상회담

원리금 상환전까지 '5대5 배분'
'상업적 합리성' MOU에 명시
자동차 관세 25→15%로 인하
농업분야 추가 개방 방어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에 사실상 합의했다. 한미는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는 대신,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자는데 합의했다. ▶관련기사 4·13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제외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



악수하는 한미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

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

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대미투자 구조	총 3,500억달러	
	현금 투자 2,000억	조선업 협력 1,500억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한국 기업 주도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
	- 투자 약정 2029년 1월 - 외환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투자 이익 배분 구조	-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조정 가능 - 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 합의·양해각서(MOU) 명시	
주요 관세율	- 자동차 관세 25%→15%로 인하	
	- 상호관세 15% 적용 중 (7월 말 합의 이후)	
	- 품목관세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 무관세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방어 내용	- 쌀·쇠고기 포함 농업분야 추가 개방 없음 - 반도제는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연암뉴스

자료: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정청래 “필요한 경우 지방선거 전략공천”

‘내리쬐는 일’ 없다면서도 가능성 열어둬
‘참좋은지방정부’ 발대식서 ‘地選’ 언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 “필요한 경우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전략공천은 당헌·당규대로 보장됐고, 필요한 경우 전략공천을 하는데 그것은 컷오프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

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또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눈치를 그렇게 안봐도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임금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 룰이 아니다”고 질타 말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서로 상충되는 내용

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도부에서 특정 후보를 내리쬐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당원 주권시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방선거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 정 대표는 “(서류상) 예외 없는 부적격’은 예외 없이 서류 탈락이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며 “(단

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하거나, 심사위원 3분의2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체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oday

광주·전남·AI산업·컴퓨팅 메카 토론회 5면

남도인물열전·양림동 출신 ‘양촌 정영’ 14면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 광주서 열린다 16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이 되겠습니다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린다

문의 1899-5566
www.acc.go.kr

ACC의 다양한 소식을
SNS로 빠르게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하반기 주요 전시·공연

전시	2025 ACC 포커스 《로지 이케다》	~ 12.28.(일)
전시	ACC 10주년 특별전 《봄의 선언》	~ '26.2.22.(일)
전시	ACC 소장 아카이브 전시 김한용 아카이브 사진전 《꿈의 기록》	~ '26.3.15.(일)
전시	아시아문화박물관 중앙아시아 특별전 《길 위의 노마드》	11월 ~ '26.9월
전시	ACC 10주년 특별전 《아시아의 장치들》	12월
공연	한국, 대만, 태국의 연출가가 발견한 아시아의 '다양성 속의 연결' 아시아 3국 공동제작 <Remapping ASIA>	11월
공연	아시아 영웅신화 <마나스>의 현대적 해석 ACC×키르기즈국립극장 <세메테이>	11.28.(금) ~ 11.29.(토)